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3 pp. 726-734,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3.72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신향단[1], 이지원[2*]
[1]중국연변대학간호학원, [2]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Xiang-Dan Shen[1], Ji-Won Lee[2*]
[1]Nursing collage of YanBian University, China
[2]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한국 간호대학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2019년 11월 01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 B 시 소재 1개 대학교와 중국 Y 시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족 대학생 160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중등 정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공감능력 향상, 긍정심리자본 강화, 대인관계 유능성 촉진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160 survey questionnaires from Nov.1 to Dec 30, 2019, from Korea and China. The data us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nursing students' empath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cores were higher than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in China. The empathy ability of Korean nursing student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mpathy a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of Korean-Chine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higher the empathy ability, the higher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igher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everal intervention programs will be needed to increase the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Keywords :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i-Won Lee(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jwlee@cup.ac.kr
Received December 22, 2020 Revised February 8, 2021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 감정 상태에 대한 인지와 체험이며 또한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1]. 이러한 공감은 이타적 행동의 기초가 되며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빠르게 느끼고 타인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지와 도움을 주어 사회적 관계에서 핵심적 요소이다[2]. 동정심과 간호 대상자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능력[5]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의 하나이며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간호 대상자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대상자의 불안감 감소와 간호 욕구를 충족시키며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3]. 실제로 간호 대상자는 공감이 기반이 된 간호를 받았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고 질 높은 간호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4]. 간호사는 공감을 통하여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후천적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으므로 대학생 시기부터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중요성을 지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진다[6].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긍정심리자본은 개발 가능한 개인의 긍정적 심리적 상태이며 자기 스스로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간호대학생은 학과 특성상 간호사 국시 시험에도 응시하여야 하고 임상 실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술기 능력도 향상하여야 하므로 다른 전공 대학생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긍정심리자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적이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간호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타인들과 협력적, 상호의존적으로 일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10]. 서로에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인 상호작용을 통한 내적 공감을 형성하고[11]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효과적 관계 형성은 사회적 적응을 돕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반대로 불안정한 대인관계는 불안, 우울 및 좌절 등의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다[14].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 기간 의료진, 환자, 보호자 등 여러 조직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환자와 동료들의 감정,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며, 간호업무 효율을 높이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다[15,16].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을 많이 보인다. 재외 동포라 불리며 한글을 사용하고 백의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그대로 보존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문화 특성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특히 조선족 대학생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 다른 민족 대학생보다 취업률이 높다[17]. 2007년 한국 방문 취업 비자(H-2) 정책이 도입되면서 중국 내 많은 대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 그중 조선족이 가장 많은 비례 수를 차지하고 있다[18]. 실제로 중국에서 간호를 배우고 한국 건강검진센터에서 통역을 담당하거나 성형, 미용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간호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간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19] 이렇게 간호학을 전공하고도 다른 나라에서 간호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 간호사 자격증 취득이 어렵거나 그 나라의 간호교육 과정을 다시 수료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2019년부터 중국 Y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한국으로 들어와 간호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설립되고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언어적 우세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들의 공감 관련 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황으로서 그 연구는 임상 실습과 관련된 심리 건강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확인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간호 전문기술뿐만 아닌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활한 전문직 간호사 자질을 갖추고 조선족 문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한국 간호대학생

과 비교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비교한다.
3)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를 파악한다.
4)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한국 B 시 소재 1개 간호대학생 3,4학년과 중국 Y시 소재 1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족 대학생 2,3,4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0명이었다. 중국 간호대학의 학제 특성상 임상실습은 2학년부터 진행하여 연구 대상 제외 기준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한국 간호대학생 1,2학년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1학년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의 산출 근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t-test, 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으로 설정하고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 크기 0.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설정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28명으로 산정되었고,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 각 80명씩 총 16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2.1.3 연구도구

연구 도구를 사용하기 전 선행연구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이 한글에 능숙하나 언어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한국어판 도구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공감능력 .77, 긍정심리자본 .84, 대인관계유능성 .84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간호대학생이 자가 보고 설문으로 일반적 특성 5문항, 공감능력 17문항, 긍정심리자본 18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31문항, 총 71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응답하는 시간은15분~20분이다.

1) 공감능력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측정도구로 Hojat 등[21]이 개발한 Jefferson scale of empathy를 Ryu와 Bang[22]이 간호사 대상으로 번역하고 Jung Kye-A[23]가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관점수용 10문항, 공감적 치료 6문항, 환자의 입장에 서기 1문항 총17개 문항으로 구성 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ri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구의 신뢰도는 Ryu와Bang(Ryu HR, Bang KS)의 Cronbach's α는 .89, 정계아의 Cronbach's α는 .7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였다.

2) 긍정심리자본 도구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로 Luthans, Youssef & Avolio(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임태홍[24]이 번안 및 수정하여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가지 하위 영역으로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문항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ri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임태홍의 Cronbach's α는 .94이며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α .92이였다.

3) 대인관계유능성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도구로 Buhrmester 등[25]이 개발하고 한나리와 이동귀[26]가 번역 및 수정하여 대학생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가지 하위영역으로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 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3 이고 한나리와 이동귀(2010)의 Cronbach's α는 .88이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9이였다.

2.1.4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IRB-2019-05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각 대학교 간호학 학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학과 교수가 연구자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조연구원이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각 구분하여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이 끝난 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1.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점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는 총 160명으로 평균 나이는 21.8±2.1세였다. 한국 간호대학생 중 남자는 13.8%, 여자는 86.2%를 차지하였고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중 남자는 17.5%, 여자는 84.4%를 차지하였다. 한국 3,4 학년 간호대학생은 각각 60.0%와 40.0%이었고 중국 2,3,4학년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28.7%, 38.8%, 32.5%이었다.

Table 1. Nursing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 N=80	China N=80	Total N=160
Gender	Male	11 (13.8%)	14 (17.5%)	25 (15.6%)
	Female	69 (86.2%)	66 (82.5%)	135 (84.4%)
Grade	2	0 (0%)	23 (28.7%)	23 (14.4%)
	3	48 (60.0%)	31 (38.8%)	79 (49.4%)
	4	32 (40.0%)	26 (32.5%)	58 (36.2%)

2.2.2 한, 중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비교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점수는 5.88±0.55으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5.15±0.74)보다 높았다. 긍정심리자본과 대인관계 유능성도 한국 간호대학생이 3.82±0.51, 3.75±0.40으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3.44±0.55, 3.42±0.42)보다 높았다. 공감능력(t=7.012, p<.001), 긍정심리자본(t=4.546, p<.001) 및 대인관계 유능성(t=5.223, p<.001)은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Nursing Students' differences in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Korea and Korean-Chinese in China (n=160)

Variables	M±SD		t	p
	Korea	China		
Empathy Ability	5.88±0.55	5.15±0.74	7.012	<.001
Perspective acceptance	5.78±0.61	5.28±0.87	4.187	<.001
Empathic therapy	6.20±0.66	5.07±0.97	8.556	<.001
Thinking from the subject's point of view	5.04±1.40	4.31±1.42	3.252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82±0.51	3.44±0.55	4.546	<.001
Self-efficacy	3.75±0.60	3.36±0.56	4.215	<.001
Optimism	3.89±0.62	3.51±0.67	3.739	<.001
Hope	3.95±0.56	3.37±0.63	6.028	<.001
Resilience	3.60±0.94	3.55±0.82	0.328	.743
Interpersonal Competence	3.75±0.40	3.42±0.42	5.223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Korea nursing students (n=160)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2-4
1Empathy Ability									
1-1Perspective acceptance	.930**								
1-2Empathic therapy	.828**	.603**							
1-3Thinking from the subject's point of view	.289**	.161	.083						
2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92	.225*	.102	.015					
2-1Self-efficacy	.258*	.231*	.241*	.035	.765**				
2-2Optimism	.148	.193	.021	.092	.823**	.449**			
2-3Hope	.242*	.288**	.172	-.126	.870**	.648**	.670**		
2-4Resilience	-.051	-.010	-.116	.037	.681**	.297**	.446**	.421**	
3Interpersonal Competence	.136	.236*	-.018	-.066	.529**	.373**	.488**	.460**	.337**

Table 4. Correlation among Empathy 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of China (n=160)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2-4
1Empathy Ability									
1-1Perspective acceptance	.898**								
1-2Empathic therapy	.767**	.424**							
1-3Thinking from the subject's point of view	.386**	.261*	0.217						
2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40**	.492**	0.188	0.195					
2-1Self-efficacy	.292**	.330**	.0.086	.272*	.823**				
2-2Optimism	.414**	.417**	.270*	0.075	.863**	.610**			
2-3Hope	.457**	.502**	0.209	0.195	.890**	.639**	.716**		
2-4Resilience	.266*	.366**	0.014	0.113	.724**	.483**	.455**	.544**	
3Interpersonal Competence	.429**	.467**	0.183	.267*	.726**	.534**	.544**	.725**	.608**

2.2.3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상관관계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r=.192 ,p〉0.05), 대인관계 유능성(r=.136 ,p〉0.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2.2.4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유능성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r=.440 ,p〈0.01), 대인관계 유능성(r=.42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다(Table 4).

2.3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이 차지한 비율은 한국과 중국 모두 15% 좌우(한국15.6%, 중국 17.5%)로 두 나라 모두 기존의 여성만이 간호사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자들에게도 점점 주목을 받는 전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그러나 증가하는 남자 간호사의 수에도 불구하고 간호 직업에서 남성은 소수집단으로 이직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중들은 아직도 여자간호사가 더 익숙하고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간호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는 갈등을 초래하여 스트레

스가 높아지고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중국 남자 간호사의 이직률도 68.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간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대인관계 불안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공감은 개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대상자의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도 반응하여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공감능력 증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점수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높았고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생활배경과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중국 동북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변강도시로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 러시야, 일본과 가까워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고 있다. 연변에서 조선족 초, 중, 고를 다닌 대학생들은 비록 한글과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지만 주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후 다민족이 함께 중국어를 사용할 때 혹은 임상실습과정에서 상대방과 교류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공감이 부족한 걸로 사료된다[31]. 두 나라 모두 공감능력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높았고 하위 요인 중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적 치료점수가 제일 높았고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관점 수용 점수가 제일 높았다. 기존 중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2,33]. 공감은 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인식 차이가 크므로[34] 간호대학생은 사회로 진입하기 전부터 대상자가 만족하는 공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간호를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35]에 의하면 긍정심리학의 연구 초점은 긍정적인 상태, 특징, 기관으로 특정 목표에 따른 잘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며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대학생 긍정심리자본과 하위 요인 점수 모두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 실제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소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중국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외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향후 개별 속성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3.75±0.40로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 조선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한 민족으로서 대학으로 진입한 후 대인관계, 학습 적응, 대학 생활 적응, 정서적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36]. 이는 어려서부터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음식 습성이거나 생활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로 쉽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뜻을 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아효능감과 희망과는 얕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37] 의하면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과 상관관계가 있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8 , 39]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표집 대상이었고 도구 또한 부동한 것으로 추후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 유능성과 중등정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과는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희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0] 188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공감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41]. 공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역시 중등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공감은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대상자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42].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들[43][44][45]과 일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임상현장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시키고 긍정의 힘을 키우면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하는데 공감능력을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비교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 모두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낮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개 대학교 조선족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다른 민족으로 확대하여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공감능력 향상, 긍정심리자본 강화, 대인관계 유능성 촉진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공감, 대인관계에 대한 임상실습과정 경험을 토대로 공감이 조선족 간호대학생에게서의 실질적 의미파악을 위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Q. Chen,N.Zhang. "On the Application of Empathy in ideological and Political Work in Universities", Contemporary Education Forum, Vol.07,pp.15-16(2page), 2016.

[2] J. F. Dovidio, "Helping behavior and altruism: An empirical and conceptual overview",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7, pp.361-427,1984.

[3] M. X. Li, Introduction to nursing, p14,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2008,

[4] M. O.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IB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No.4,pp.303-311,2016.

[5] S. Halldorsdottir, "Feeling empowered: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of health", Qualitative methods in the service of health, p.47-81, 2000.

[6] M. L. Hoffman,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1982.

[7]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 S. M. Norma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60, No.3, pp. 541-572, 2007.

[8] H. S. Hong, H. Y. Kim,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2, pp. 221-234 , Feb.2016.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6.6.2.024

[9] D. O. Kim, H. J. Lee, A. Y. Lee,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 pp. 349-357,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349

[10] M. J. Steven, M. A. Campion, "The Knowledge, Skill and Ability Requirements for Teamwork :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Vol. 20, pp. 503-530, 1994.

[11] S. H. Clarkson, "The international field in transactional analy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 22, No. 2, pp. 89-94, 1992.
DOI: http://dx.doi.org/10.1177/036215379202200205

[12] M. O. Chae1,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95

[13] M. A. Kim, J. Kim, E. J. Kim,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2B, pp.1103-1113, 2014.

[14] E. Y. Yeom, H. O. Jeon, "Relations of burnout,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869-2879, 2013.

[15] H. I. Jo, M. 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No.11, pp.139-158(20pages), 2010.

[16] Y. Wei,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empathy", Chinese Psychological Society. The tenth National Psychological Academic Congress papers abstract collection, pp.721,2005.

[17] C. M. Zheng, "Transnational mobile life and development trend of Chinese Korean with high education in South Korea", Blooming Season, p.438-441, 2020.

[18] L. L. Piao, "A Survey of the Employment Situation of Korean Graduates ———Yanbian University as an Example",Journal of Chifeng University(Soc.Sci),Vol.41, No.3, p,72-76,2020.
DOI:
https://doi.org/10.13398/j.cnki.issn1673-2596.2020.03.017

[19] X. H. Li. "Evaluation of the effect of cultivating empathy ability on improving job burnout and nurse-patient relationship of emergency nurses",Vol.3, No.01 pp.163+181, 2018.

[20] Y. Qi, M. f. Wu, H. M. Jin, "A study on mental health states of Korean and Han nationality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nursing research,

Vol.20, No.9, pp.2279-2282, 2006.

[21] M. Hojat, S.l. Mangione, T. J. Nasca, M. J. Cohen, J. S. Gonnella, J. B. Erdmann, "The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1, No.2, pp. 349-365, 2001.

[22] H. R. Ryu, K. S. Bang,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Empathy Scale for Health Professionals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6, No.2, pp.207-214, 2016.

[23] K. A. Jung, Development and Effects of Simulation-Based Empathy Improv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9.

[24] T. H .L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K-PPC)", Coaching ability, Vol.16, No.3, pp.157-166.

[25]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 991, 1988.

[26] N. R. Han, D. G. Lee. "Validation of 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1, pp.137-156(20 pages), Feb.2010

[27] S. H. Chen, H. Y. Yu, H. Y. Hsu, F. C. Lin, J. H. Lou, "Organisational support, organis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s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mong male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21, pp.1072-1082, 2013.

[28] Y. R.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J Korean Acad Fundam Nurs , Vol.16, No.4, pp.449-458, Nov. 2009.

[29] W. F. Yi, W. H. Yu, F. Wan, K. Cheng, W. J. Li, "Investigation, Analysis and Counter measure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asons of nurses' turnover in operating room of Grade Iii First-class hospital in Wuhan city", Journal of Qilu Nursing, Vol.21, No.24, pp.60-62, 2015.

[30] Y. G. Pan, Y. L. Liu, J. L. Ma, G. M. Ran, H. Lei, "Neurobiological Underpinnings of Empathy", Advance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No.12, pp.2011-2021, 2012.
DOI: https://doi.org/10.3724/SP.J.1042.2012.02011

[31] M. F. Wu, Y. Qi, H. M. Jin, "Study on the Psychological Status of Nursing students of Korean and Han nationality in Yanbian area before and after practice", Chinese Journal of Nursing, No.01, pp.61-63, 2006.

[32] X. Liu, H. Y. Sun, X. W. Feng.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empathy abilit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hinese Nursing Research, Vol.25, No.11, pp.2933-2935, Nov. 2011.

[33] F. M. He, F. J. Meng, X. Liu, "The correlation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master programs", Chinese Nursing Management, Vol.13, No.4, pp.1672-1756, 2013.

[34] J. A. Youn,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npatient and nurse on nursing service" ,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5.

[35] S. H. Lee,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Positive Psychology Through Natural Environments: Positive Experience", Kor. J. Psychol, Vol.33, No.1, pp.51-79(29 pages), Gen.2014.

[36] X. R. Zhang, X. Y. Wang,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of minority Freshme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The southern theory of publication, No.1, pp.83-85, 2020.

[37] I. A. Ryu, J. W. Han, "The Effect of Compassion on the Job Performance of Social Workers :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9, No.1, pp.331-365(35pages), Apr.2020.

[38] K. H. Kim, H. K. Lee, "The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loration of path model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Self-Compassion, and Cognitive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6, pp.83-107,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6.201512.83

[39] J. Eun, M.R. Jung, "Influences of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linical Nurses", Jour. of KoCon.a, Vol.18, No.3, pp. 246-255 (10 pages),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246

[40] N. N. Cao, Y. Cai, W. W. Yu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tudents' characteristics of hope,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empathy", Journal of Chifeng University (Natural Science Editio n) , Vol.34, No.12, pp.86-89, 2018.

[41] L. S. Fu, Y. LI, F. M. Fan, "Effects of Positive Feedback on Positive Affect of Both Sides: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Empathy",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8, No.3 , pp.454-459, 2020.

[42] L. Sh. Liu, Y. H. Yang, W. C. Xu, "The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communication ability among nurses",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 Vol.15, No.11, pp.770-772, 2015.

[43] L. Xu, R. J. Sun, "Survey and analysis of empathy ability of head nurses and leadership behavior of managers", Journal of Qilu Nursing, Vol.18, No.30, pp.22-23, 2012.
DOI: https://doi.org/10.3969/j.issn.1006-7256.2012.30.009

[44] X. Qiao,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emotional ability of low-grade nurses in Beijing and its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Taishan Medical College, Vol.41, No.1, pp.59-62, 2020.

DOI: https://doi.org/10.3969/j.issn.1004-7115.2020.01.016

[45] D. Liu, G. P. Wang, C. Y. He, "Current situation and correlation study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ealth Occupations Teacher Education, Vol.34, No.16, pp.124-126, 2016.

신 향 단(Xiang-Dan Shen) [정회원]

- 2014년 6월 : 중국연변대학교 간호학원 (간호학 석사)
- 2021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4년 7월 ~ 현재 : 중국연변대학교 간호학원 기본간호학 강사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이 지 원(Ji-Wo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